

朝鮮日報

오피니언 > 전문가칼럼

[우정아의 아트 스토리] [398] 템스강변서 찾은 유물들

우정아 포스텍 교수·서양미술사

입력 2021.10.12 03:00



마크 디온 '테이트 템스 채굴' 1999년, 266×370×126cm, 마크 디온과 타냐 보낙다르 갤러리 제공.

런던의 유서 깊은 미술관 테이트 갤러리의 전시실 한가운데 진열장이 서 있다. 앞뒤 양면에 문짝과 서랍이 달린 육중한 마호가니 진열장은 고풍스러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전시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, 막상 들여다보면 내용이 영 뒤죽박죽이다. 정체를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뿔조각, 오래된 도자기 파편, 녹슨 각종 기계 부품과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병뚜껑 등 고고학 유물이라 할 만한 것들과 아무리 봐도 허접한 생활 쓰레기가 별다른 설명 없이 뒤섞인 채 가지런히 놓여 있기 때문이다.

미국 미술가 마크 디온(Mark Dion·1961~)은 1999년 주민들과 함께 런던의 템스 강변을 도심의 밀뱅크와 서남쪽뱅크사이드 두 구역으로 나누어 살살이 훑으며 그 나름의 '유물'을 건져 올렸다. 밀뱅크에는 테이트 갤러리가 있고, 뱅크사이드에는 도심에 전력을 공급하던 화력발전소가 폐쇄된 채 비어 있다가 이듬해 테이트 모던이라는 미술관으로 재탄생을 앞두고 있었다. 디온은 유적지에서 유물을 발굴하고 이것들을 시대와 지역, 용도와 재료 등으로 세밀하게 분류하여 '역사'를 재구성해 보여주는 고고학과 박물관의 역할

BARAKATCONTEMPORARY

을 모방했다. 그러나 소장 가치 유무를 결정하고 오만 가지 사물을 몇몇 기준으로 나누어 정렬하는 종전 관행은 거부했다. 이 세상에 절대적 가치나 보편적 기준이란 없고, 분류 체계가 달라지면 역사도 변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.

디온은 16세기부터 유럽인들이 자연과 인공을 불문하고 진귀한 것이면 무엇이든 수집해 한데 모아두던 '경탄의 방'에서 영감을 얻었다. 편견 없는 미술가 손을 거쳐 박물관에 안착한 쓰레기들에서 경이로운 발견을 해내는 건 관람자의 몫이다.